

사회

# 부도·남편 실직에 카드 돌려막다..

## 광주 성인 100명 중 1.5명 개인파산·회생 신청

### 파산법정, 아이 업은 주부서 노인까지 다양각색

# 지난 2007년 친척에게 카드를 맡겼다가 1억원까지 빚이 붙어난 가정 주부 조모(45)씨는 끝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원금은 3000만원으로, 카드 돌려막기, 제2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5년을 버텼지만 빚만 늘어났다. 딱히 수입도 없고 앞으로 예상되는 금융거래도 없어 파산을 선택했다.

# 식품가공장을 운영하던 박모(40)씨는 지난 2005년 부도난 뒤 7년간 빚 독촉을 피해다니다가 결국 법원을 찾았다. 지인의 소개로 지역 곳곳에서 1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일했지만 1억원이던 원금이 이자

가 붙어 1억5000만원이 되자 한계를 느꼈다.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2층에 100여 명의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몰려들어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렸다. 재판이 적은 매주 월요일이면 변호사나 법무사 주위로 아이 업은 20대 주부부터 70대 노인 등이 몰려들어 설명을 듣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빚에 허덕이며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의미가 없는 서민들이다.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재산이 환급되고 7년 동안 금융기관에 정보가 남아 대출 등 신용커

래는 물론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렵게 되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개인파산 여부가 결정되는 신청자는 오전에만 140명, 오후 137명 등 모두 277명. 지난 8월31일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3980명, 5년간 최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 신청자는 3892명 등으로 모두 7872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46명(파산 4686명 회생 3160명)과 비교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2년간 1만5718명이 채무문제로 법원을 찾았다.

2011년 광주의 20세 이상 성인인구가 108만248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 100명 중 1.5명이 채무 변제에도 버겁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도

덕성 하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무분별한 파산은 줄고,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야하는 개인회생이 증가하고 있다.

5번째 파산을 신청한다는 정보(여·31)씨는 "남편이 실직하면서 내 명의의 카드로 살다가 신청하게 됐다"며 "육아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데 법원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다며 파산을 안 받아준다"고 토로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지금 파산이나 회생 신청자의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5~6년 전에 빚을 진 뒤 카드사나 사채 등을 써가며 버티다가 감당하지 못한 사례"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탓에 파산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대리운전 기사의 복수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인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리자 만취한 차량 주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떠난 줄 알았던 대리기사가 숨어있다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운전자는

호동 자택으로 가줄 것을 요구했다. 추가요금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씨 아파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씨가 2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기본요금인 1만원만 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결국 차를 아파트 단지에 둔 채 가버렸다.

### 요금 시비로 아파트 단지내 정차

### 음주상태로 주차하자 경찰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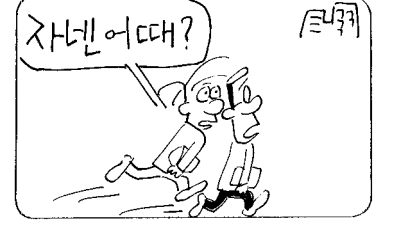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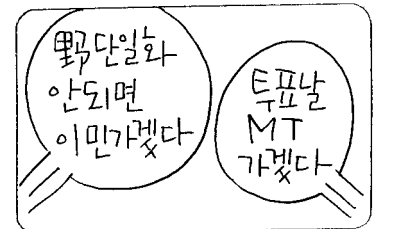
"억울하다"고 토로했으나 경찰은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이모(47)씨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렀다. 이씨는 도착한 대리기사 A(32)씨에게 서구 마

별수없이 이씨는 지하주차장까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차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나타났다.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6%.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초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 내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불경기에... '여보 미안해' 길을 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옷가게가 폐업을 앞두고 모든 제품을 처분하기 위해 내건 '폐업정리!! 여보 미안해!'라는 절박한 문구의 현수막이 행인들의 눈길을 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법원 풀어준 실형 피의자 경찰 추가 영장

### 경찰 "유사 범죄 도주 우려 있다"... 법원 신청 영장 기각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재판부가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지 않자 경찰이 피의자가 기소 사실 이외 유사한 범죄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3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진호)에 따르면 지난 11일 학교 행정실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냈던 리베이트로 1억1000만원을 챙긴 박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씨가 공소사실을 다루고 있으며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그러나 풀려난 박씨에 대해 30일 같은 앞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결과 수의계약만이 아니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거래되는 조달물품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700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박씨가 구속됐다면 추가 기

소할 예정이었으나 박씨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풀려나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영장전담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앞선수재한 금액이 2억원에 가깝고 조달계약과 관련된 비리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영장전담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최모(50)씨는 받은 액수가 75만원 정도로 적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술값 왜 덜 내" 선배 폭행

광주동부경찰은 30일 술값을 모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강모(50)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8시께 광주시 서구 한 호프집에서 지인 전모(57)씨와 술을 마신 뒤 전씨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자 뒤를 따라가 얼굴 등을 때려 전씨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함께 술을 마신 전씨가 술값 7만원 중 5만원만 계산하고 나가버리자 만취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

### 남학생 바지 벗기고 성추행한 여중생들

○최근 울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휴식시간 중 여중생 4명이 동급생 남학생 1명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폭행했다가 전학조치.

○해당 학교 측은 이들 여중생이 지난달과 지난 1학기에도 여러 차례 교실에서 이 남학생을 추행했다가 교사에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성추행에 가담 정도가 심한 여학생 2명을 전학 조치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학급교체를 명령.

/연합뉴스

## 배기운 의원직 상실 위기

### 광주지검, 선거법위반 혐의 징역2년 구형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30일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배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구형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의원은 지난 1~2월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

여원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라 배 의원은 자신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된다. 배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원어민 여강사 "택시기사에 성폭행 당했다"

광주에서 20대 원어민 여강사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47분께 미국 국적의 원어민 강사 A(여·22)씨가 택시 기사로부터 성폭

행을 당했다며 상무지구대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 밤 10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인근에서 친구들과 헤어지던 뒤 서구 유촌동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현장 같은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행을 당한 이후 2시간 가량 걸다가 또 다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떨어진 A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결과 하남공단 5번 도로 인근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최희승기자 srchoi@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1층	농협, 카페베네, 편의점 입점 확정
2층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3~5층	전문클리닉, 한의원
6~7층	전문학원
8층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완공 완료

시공 | 나로건설 | 분양 및 임대문의 | 062-576-8938-016-885-0881

NAVER 나주혁신도시 및가람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모델하우스 10월 오픈

TODAM huoros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

충장로 1가입구 탐앤탐스 8층

**67기비니 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이팅이 없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 점심 ₩12,900
- 평일 저녁 ₩14,900
- 주말, 공휴일 ₩15,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30 ~ PM 10:00시

예약문의 226-0003

주치인내 : • 승용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인산 1주차장)  
• 승합차 이용시-인산 2주차장 이용(인산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